동물용의약품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 갈등

“병원 독점해 가격 높아” vs “안전유통 위해 한정”

〈대한동물약국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병원-약국 이해관계 대립
정부 수수방관…소비자만 피해

펫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의술(醫術)의 경우 진찰과 약 조제가 분업화 돼있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약국에는 유통되지 않는 약을 독점, 처방하고 있어 병원과 약국 간에 이해관계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절한 3개 제약업체와 동물약국에 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종용한 수의사 5명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은 심장에 연결된 동맥에 자리 잡고 자라난 기생충으로 피를 폐로 보내는 것을 방해해 심각한 질병인 심부전증을 유발한다.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1달에 1번 예방약을 투여하거나 몸에 발라주고, 1년에 1번 감염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가격은 1만4000원 정도로 2~3배가량 높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매달 예방약을 소비해야하는 반려인들에겐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물 심장사상충 약 판매를 두고 동물약국협회와 동물병원협회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 | 대한동물약국협회장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독점시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메리알 코리아가 심장사상충 예방제 ‘히트가드’를 국내 독점 판매상인 에스틴에게 공급하면서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제약사 벨벳 측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통해 유통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심장사상충 약을 두고 제약사와 수의사, 동물약국 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위원장은 “수의사의 처방 대상 의약품조차도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데 일반 동물의약품인 심장사상충 약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농림축산부가 지정한 법에서도 심장사상충 약은 병원과 약국에 공급이 가능한 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의사 처방제 시행 3년 동안 동물병원이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할 뿐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호자가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처방을 위해선 수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병원협회 측 입장은 다르다. 허주형 회장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심장사상충의 마이크로 필라리아(유충)나 심장사상충을 죽이는 약”이라며 “마이크로 필라리아는 문제없지만 심장사상병 성충을 가진 동물이 약을 먹었을 경우엔 몸 안에 성충의 사체가 남아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관을 막게 돼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 후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협회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현 수의사 동물의약품 처방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사예외조항’이 보완된다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구매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동안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와 병원간에 불신이 생기고 약사와 병원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부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의 생명과 연관된 의료문제인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이 촉구되는 바이다.

김담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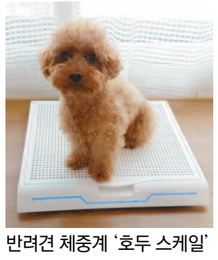
강아지 다이어트엔 ‘호두 스케일’이 딱!

체중계 기능 결합된 반려견 배변판
앱 연동돼 스마트폰으로 비만 관리

반려견의 비만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스마트 체중계가 출시돼 비만견 보호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퀘어의 ‘호두 스케일’은 체중계 기능이 결합된 배변판이다. 반려견이 배변을 위해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체중이 측정돼 반려견을 체중계 위에 올리는 수고를 줄여준다. 호두 스케일은 반려견의 비만도에 따라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식사량을 알려줘 식이조절도 할 수 있다. 또 측정한 체중 기록을 바탕으로 갑자기 몸무게가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등 건강이상 징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매일 배변 때마다 측정된 정보는 ‘다이어트 코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다. 스마트폰으로 반려견의 견종, 나이, 성별, 키 등에 따른 비만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지내는 가정에선 비콘이 내장돼 있는 목걸이 인식표를 통해 자동으로 개별 체중측정 및 조회·관리가 가능하다.


반려견 체중계 ‘호두 스케일’

한편 스퀘어는 스마트 체중계 ‘호두 스케일’과 애플리케이션 ‘다이어트 코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케이펫페어(서울:3월31일~4월2일, 부산:4월29~30일)와 펫케어페스티벌(인천:4월14~16일, 안산:5월5~7일)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담희 객원기자

‘장보는 강양이’ 만나보세요

반려동물 용품 대형 할인매장
국내외 90여 브랜드 제품 판매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간식, 장난감 등 다양한 용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몰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이하 장보는 강양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84개 지점에서 대형 할인매장 콘셉트로 운영 중인 ‘장보는 강양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을 논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다. 특히 행사하는 상품을 매월 변경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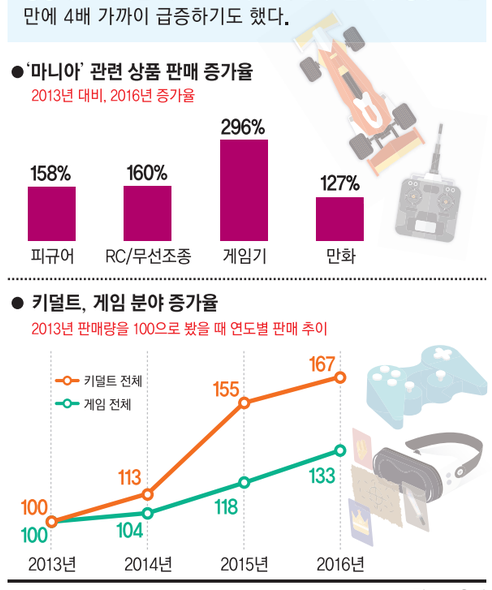
‘장보는 강양이’는 세계 50여개 반려동물 브랜드의 고품질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40여개 국내업체로부터 OEM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브랜드파워 대상과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화제의 기업으로 떠올랐다.

‘장보는 강양이’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의 식품과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펫 문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담희 객원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제 ‘마니아’(키덜트) 들의 소비 증가율

옥션이 최근 3년간 키덜트, 게임, 만화 등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3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 자료 : 옥션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 50호점 개관

롯데홈쇼핑이 제주시 구좌읍에 문화 소외지역 아동들을 위한 친환경 학습공간인 ‘작은도서관’(사진) 50호점을 개관했다. ‘작은도서관’은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 자라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롯데홈쇼핑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50호점은 제주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했으며, 친환경 자재로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서 및 책걸상 지원 등 보수 작업을 진행해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했다.

정정욱 기자

NS홈쇼핑 ‘우리먹거리 요리축제’ 개최

NS홈쇼핑이 4월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0회 NS홈쇼핑 우리먹거리 요리축제’를 연다. ‘요리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먹거리의 레시피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단품요리 발굴을 위한 ‘간편요리부문’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부문’의 경연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장으로 선보일 예정. 2인 1팀으로 접수된 레시피는 심사를 거쳐 ‘간편요리부문’에 일반 50팀·학생 30팀과 ‘도시락부문’에 20팀 등 총 100팀의 본선 참가자를 선발하고, 4월25일 본선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된다. 참가 신청은 NS몰(www.nsmall.com)에서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